

주간 전남농업

VOL. 210

2018년
11월 셋째주

양파 힘든 작업 이제 기계로 척척

주간 날씨정보

22일 오전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농작물도 미리 월동준비
해 주세요

정책동향

전남도, 올 논 타작물
재배 면적 전국 최다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n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22일 오전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6도, 최고기온 : 11~15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1~3mm)과 비슷하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과일류 관측
- ▶ 과채류 관측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4

- ▶ 전남도, 하반기 수출상담회서 793만 달러 계약
- ▶ 강진, 유기농쌀! 즉석밥용으로 미국 수출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6

- ▶ 전남농업기술원, 양파 힘든 작업 이제 기계로 척척
- ▶ 농작물도 미리 월동준비 해 주세요
- ▶ 마늘 재배 시 언 피해 없도록 땅 덮기 꼭 해야
- ▶ 기능성분의 보물창고 감귤, 건강과 피부에 최고
- ▶ 국산 감초, 수입 감초보다 식품 안정성 높아
- ▶ 올해 무더위와 가뭄으로 콩 수량 감소 예상
- ▶ 겨울철 농치기 쉬운 돼지우리 관리 요령

6. 정책 동향 23

- ▶ 전남도,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나서
- ▶ 전남도, 올 논 타작물 재배 면적 전국 최다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5

- ▶ 곡성군, 토란 소비 진작을 위해 스피드 레시피 배포
- ▶ 고흥군, 유자 적기수확으로 수세안정 도모 나선다
- ▶ 장흥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12월 4일까지 접수
- ▶ 완도군, 자연 그대로 키운 소안도 노지 감귤 본격 출하

8. 해외 농업정보 29

- ▶ 인도 FSSAI, 과일 및 야채 표면에 스티커 부착 자제 요청
- ▶ 태국, 설탕·사탕수수 생산 및 소비량 감소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11. 19. 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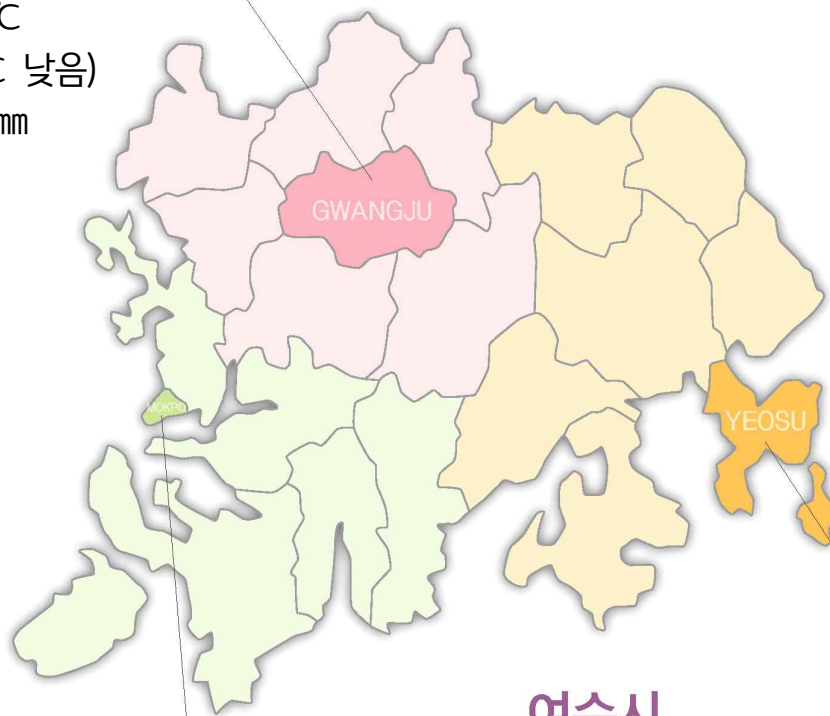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3

- ▶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 ▶ 청림한세상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9.0℃
(평년대비 1.7℃ 낮음)
- 최고기온 : 14.3℃
(평년대비 2.3℃ 낮음)
- 최저기온 : 4.6℃
(평년대비 1.6℃ 낮음)
- 강 수 량 : 1.4mm



목포시

- 평균기온 : 10.1℃
(평년대비 0.4℃ 낮음)
- 최고기온 : 15.0℃
(평년대비 3.0℃ 낮음)
- 최저기온 : 6.3℃
(평년대비 1.3℃ 낮음)
- 강 수 량 : 1.4mm

여수시

- 평균기온 : 10.8℃
(평년대비 1.3℃ 낮음)
- 최고기온 : 14.6℃
(평년대비 1.9℃ 낮음)
- 최저기온 : 7.6℃
(평년대비 1.5℃ 낮음)
- 강 수 량 : 1.5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과일류 관측 - 올해 사과·배 저장량 전년 대비 감소 전망

올해 사과·배 저장량 전년 대비 감소 전망

2018년산 저장량 전망 (전년 대비 증감률)



11월 출하량 및 가격 전망 (전년 대비)



🍂 11월 가격전망 : 주요 과일 가격 전년 대비 상승

- 사과(후지)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만 5천 ~ 2만 8천 원/10kg
- 배(신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3만 2천 ~ 3만 5천 원/15kg
- 감귤(노지온주) 가격은 출하량 증가하나, 품질이 양호하여 전년과 비슷한 1,500원/kg 내외 전망
- 단감(부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만 4천 ~ 2만 7천 원/10kg
- 포도(캠벨얼리)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만 5천 ~ 2만 8천 원/5kg

🍂 11월 생산량전망 : 감귤을 제외한 주요 과일 생산량 전년 대비 감소

- 사과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15% 감소 전망
-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20% 감소 전망
- 노지온주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하나,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3% 증가 전망
- 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9% 감소 전망
-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15% 감소 전망
- 2018년 주요 과일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감률

사과	배	노지온주	포도	단감
-15.2%	-20.4%	3.0%	-9.1%	-14.7%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과채류 11월 출하량 감소 전망



11~12월 정식의향 (전년 대비 증감률)

	일반토마토	대추형 방울토마토	백다다기오이	취청오이	청양계꽃고추	일반꽃고추	애호박	수박
11월	-2%	1%	1%	-1%	21%	37%	14%	5%
12월	-1%	5%	1%	-1%	0.2%	0.1%	0.1%	-8%

🍂 11월 가격전망 : 오이 제외한 과채류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3,000 ~ 16,000원/5kg
- 대추형 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2,000 ~ 15,000원/3kg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감소하나, 전년보다 낮은 13,000 ~ 16,000원/50개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감소하나, 전년보다 낮은 29,000 ~ 32,000원/100개
- 청양계핏고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45,000 ~ 49,000원/10kg
- 일반핏고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38,000 ~ 42,000원/10kg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1,000 ~ 24,000원/20개
- 수박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강보합세인 1,300 ~ 1,600원/kg
- 딸기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39,000 ~ 44,000원/kg 전망

🍂 정식의향

- 11 ~ 12월 대추형 방울토마토 · 백다다기오이 · 청양계핏고추 · 일반핏고추 · 애호박 정식면적 증가 전망
- 11 ~ 12월 일반토마토 · 취청오이 정식면적 감소 전망
- 11월 수박 정식면적 증가, 12월은 감소 전망
- 과채류 11 ~ 12월 정식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 분	토마토		오이		핏고추		애호박	수박
	일반	대추형 방울	백다다기	취청	청양	일반		
11 월	-2.0	1.2	0.8	-0.5	20.8	37.0	13.5	5.1
12 월	-1.2	4.9	0.6	-0.6	0.2	0.1	0.1	-8.0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11. 19 기준 / 단위: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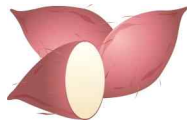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20kg	49,520	49,660	↑	28.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380	38,450	39,063	↑	26.8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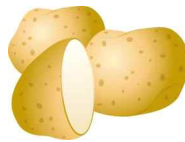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35kg	189,800	187,400	↑	15.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5,800	164,650	164,033	↑	15.7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0kg	35,800	34,800	↑	4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320	24,500	21,670	↑	65.2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20kg	46,600	48,800	↑	1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360	42,300	25,383	↑	83.6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0kg	7,400	7,600	↑	16.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6,335	5,692	↑	30.0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8kg	7,600	8,200	↑	34.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520	5,640	4,435	↑	71.4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00개	40,000	36,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733	40,000	47,167	↓	15.2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20개	25,000	24,400	↑	9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800	12,750	17,843	↑	40.1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60kg	1,172,000	1,172,000	↓ 8.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32,000	1,280,000	782,000	↑ 49.9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20kg	130,000	130,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0,000	-	-	-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20kg	10,600	11,000	↑ 29.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20	8,200	9,242	↑ 14.7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5kg	21,800	31,400	↑ 4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600	14,900	19,413	↑ 12.3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0kg	33,600	34,800	↑ 39.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2,480	24,150	24,870	↑ 35.1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0kg	36,200	39,2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480	38,050	46,213	↓ 21.7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20kg	13,800	14,400	↓ 4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4,380	24,900	21,833	↓ 36.8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kg	1,960	2,100	↑ 18.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48	1,660	1,675	↑ 17.0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개	13,800	14,600	↑ 4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480	9,600	8,507	↑ 62.2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5kg	21,600	21,800	↑ 8.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2,160	19,950	15,577	↑ 38.7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0kg	37,400	38,000	↑	1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32,950	36,603	↑	2.2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5kg	44,000	41,800	↑	3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8,000	33,800	36,793	↑	19.6

단감(단감)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2kg	29,200	28,200	↑	17.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680	24,800	19,660	↑	48.5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00g	8,002	8,361	↓	3.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433	8,271	7,473	↑	7.1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kg	5,085	5,133	↓	4.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81	5,303	5,656	↓	10.1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30kg	494,800	494,8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8,400	498,000	513,533	↓	3.6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2kg	13,400	14,000	↑	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720	12,600	12,440	↑	7.7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2kg	7,100	7,200	↓	13.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200	8,250	8,247	↓	13.9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00g	1,802	1,882	↓	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24	1,824	1,827	↓	1.4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30개	5,084	5,285	↓	1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33	5,752	5,633	↓	9.7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1/19)	1주일전 (11/12)	전년대비	
1L	2,622	2,622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7	2,520	2,540	↑	3.2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11. 19. 기준 / 단위 : 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780	5,770	5,611	↑ 0.2	↑ 3.0
	거세	6,422	6,656	6,156	↓ 3.5	↑ 4.3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41	3,145	2,967	↑ 3.1	↑ 9.2
	수	3,852	3,797	3,647	↑ 1.4	↑ 5.6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653	3,811	3,09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1	↑ 18.1

젖소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89	275	11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1	↑ 153.5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24	323	38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3	↓ 15.4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268	1,424	1,43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1.0	↓ 11.8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951	994	1,32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3	↓ 28.2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433	2,433	2,66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0	↓ 8.7



전남도, 하반기 수출상담회서 793만 달러 계약

- 미국·일본·유럽 등 7개국 바이어 초청 성과... 수산물 간편식, 한과 등 인기 -

- 전라남도는 농수산물식품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7개국에서 17명의 바이어를 초청,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11월 8일 수출상담회를 열어 793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올 들어 두 번째로 열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는 전남지역 70개 수출기업이 참가했다.
- 총 160건의 수출상담을 벌인 결과, 미국 키트레이딩(KHEE Trading)사와 7개 기업이 238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것을 비롯해 39개 기업이 12명의 바이어와 총 793만 달러의 계약(MOU포함)을 체결했다.
- 특히 수산물을 이용한 간편식을 비롯해 김, 미역 등 해조류, 김치, 장류의 인기가 높았고, 과실음료와 곡물류, 한과도 바이어의 눈길을 끌었다.
- 이번 상담회에 초청된 바이어들은 “전남의 농수산물이 수출상품으로서 한층 다양하고 업그레이드 됐다”며 “수출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을 엿 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 신경일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해외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해외 식품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수출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상담회는 수출기업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바이어를 초청,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강진, 유기농쌀! 즉석밥용으로 미국 수출

- 전남 강진군은 지난 7일 신전면소재 영동농장에서 생산된 유기농 쌀 6톤을 즉석밥으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강원도 고성군 소재 (주)한국바이오플랜트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 강진군에서는 지난 2016년 8월 강진군과 영동농장영농조합법인, (주)한국바이오플랜트가 즉석밥 미국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영동농장이 미국 농무성 USDA ORGANIC인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현지 소비 부진으로 수출을 잠시 중단하였지만 최근 수출업체에서 미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대대적인 홍보에 힘입어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수출을 재개하게 되어 2018년 호평 쌀 6톤(2천만 원 상당)을 즉석밥 가공을 위해 첫 출하하게 되었다.
- 이번에 보낸 유기농 쌀은 즉석밥 7만개 분량(약 161백만 원)으로 그동안 국내 테스트와 미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와 유통과정 검토를 마쳤으며, 소비자의 입맛과 건강 트렌드에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유기농 쌀의 즉석밥 가공과 수출을 결정하게 되었다.
- 영동농장은 지난 1982년 김용복 회장이 강진 도암면과 신전면 일대 간척지 231ha를 매입해 경작을 시작한 곳으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벼에 음악을 들려주는 음악농법과 유기농법을 실천하고 있다. 저노동 저비용으로 차별화된 농법을 주도하고 있는 영동농장은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미국 농무성 USDA ORGANIC인증을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재인증을 취득한 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유기농인증 쌀 단지다.
- USDA ORGANIC인증은 최소 3년 동안 화학비료와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유기농산물이나 유기가공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다.
- 앞으로 유기농 쌀 즉석밥은 미국 시장 내 판매 추이를 보아가며 재가공하여 지속적으로 수출 할 예정이며, 수출이 안정되면 유기인증 면적(60ha)을 추가 확보하여 영동농장에서 생산된 쌀 전량을 가공하여 수출할 목표로 현지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 강진군



🔥 전남농업기술원, 양파 힘든 작업 이제 기계로 척척

- 양파 기계화 재배 종합기술 보급에 나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양파 정식기계를 활용한 생산성 증진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국내 양파 재배면적은 26,425ha로 고추(28,824)와 마늘(28,351)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생산액은 1조 천억 원으로 딸기의 1조 4천억 원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채소 작물이다. 그러나 생산비중 노력비 비중이 56.1%로 가장 높으며 특히, 정식작업은 힘든 노동을 수반한다.
-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 3년간 정식작업의 기계화를 위해 △양파종자 발아율 향상법 △육묘관리법 △기계정식 및 입모율 향상법 등 10여건의 육묘방법과 재배법을 개발하여 기계정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해 왔다.
- 또한, 개발 기술을 농사 현장에 전파하는 등 국내외 독보적인 연구를 추진하였다. 현재는 양파 기계화 표준 매뉴얼 개발과 안정화 생산 연구를 추진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생산성 향상은 물론 경영비를 절감 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 할 계획이다.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작물도 미리 월동준비 해 주세요

- 겨울나는 작물은 물길 정비... 수확 앞둔 배추·무 언 피해 주의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기온이 떨어져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물별 안전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벼 수확이 끝난 논에 씨를 뿌려 겨울을 나는 작물인 보리·밀·사료작물 등은 토양에 물이 많고, 온도가 낮으면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따라서 비가 왔을 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물길(배수로)을 정돈하고, 작물의 서릿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흙덮기를 해주고 잘 눌러줍니다. 특히 파종이 늦어 식물이 어릴 경우, 추위에 약해 얼어 죽기 쉬우므로 볏짚, 퇴비, 왕겨 등으로 덮어 보온과 땅 속 수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 김장용 배추와 무는 수확 막바지에 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직포나 비닐을 미리 준비했다가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잘 씌워주도록 합니다. 무는 0℃, 배추는 -6℃ 이하에서 생육장애가 나타나고 -8℃ 안팎에서 언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각별히 유의합니다.
- 수확을 마친 사과, 배 등 과일나무는 원줄기에 흰색 페인트를 발라주거나 반사필름, 두꺼운 부직포를 싸매어 나무가 얼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 월동 준비를 마친 과수원 또한 과수원 안에 차가운 기류가 멈춰있게 되면 나무에 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수원 안쪽에서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애주도록 합니다.
- 겨울에도 채소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는 폭설과 강풍에 대비해 보조지지대(보강지주) 설치와 바람에 비닐이 펴러지지 않도록 고정끈(하우스 밴드)을 묶는 작업을 미리 해야 합니다.
- 보조지지대는 시설하우스 규격에 따라 2~6m 간격으로 설치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시설하우스의 폭이 넓으면 보조지지대 설치간격을 줄입니다.
- 특히 시설하우스 위에 덮은 보온덮개나 빛가림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미리 걷어두도록 합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마늘 재배 시 연 피해 없도록 땅 덮기 꼭 해야

- 올 겨울 강추위 예상, 땅 덮기 하지 않으면 동해 발생률 10~50%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올 겨울 강추위가 예상되므로 마늘 연 피해(이하 동해) 예방을 위해 중북부지역에서 난지형 마늘 재배 시 땅 덮어주기(이하 피복재배)를 꼭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마늘 피복재배는 난지형 재배지인 남부 지역 일부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동해 방지 및 수확기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 피복 방법은 부직포를 덮는 방법과 유공 백색 폴리에틸렌(PE)을 덮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운지역에서는 유공 백색 PE보다는 부직포가 보온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 부직포 피복 시기는 지역마다 다소 다르나 주로 12월 상·중순경 덮어 이듬해 2~3월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 최근 마늘 재배 양상을 보면 충남·북 등 한지형 재배지역에서 수량이 많은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는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 주로 재배되는 대서 마늘은 난지형 마늘로, 조생종이면서 수량이 높아 주산지가 창녕, 합천, 영천 등 경북·경남 지역에서 많이 재배됩니다.
- 난지형 마늘은 월동 전에 잎이 5~7매가 난 상태로 월동하지만 한지형 마늘은 월동 후 이듬해 2월경에 싹이 나므로 수량성에선 난지형 마늘이 한지형보다 높은 편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한지형 마늘 재배지대인 충북·충남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에서 난지형 마늘을 재배하고 있어 특히 동해가 우려됩니다.
- 또한 마늘은 월동작물로 동해 온도가 -7℃ 정도로 비교적 저온에서도 잘 견디는 작물이지만 지난해와 같이 강추위가 오면 지상부 뿐만 아니라 지하부까지 동해를 입게 됩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기능성분의 보물창고 감귤, 건강과 피부에 최고

- 항산화·기억력 향상·피부 주름 개선 효과... 요리에도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노지 감귤의 본격적인 출하시기를 맞아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감귤의 기능 성분과 활용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 감귤은 각종 비타민과 무기염류, 식이섬유,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 특히, 노란색, 주황색 계통의 과일과 채소에 있는 카로티노이드 성분 중 감귤류에 많이 들어 있는 베타크립토산틴은 항산화·항암 등의 활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감귤 추출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새로운 사물 인지·공간 인지·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구명했습니다.
- 감귤을 먹고 남은 껍질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뜨거운 팩(핫팩)이나 입욕제로 만들면 몸을 따뜻하게 해 혈행을 촉진시켜 냉증이나 신경통, 류머티즘 개선과 피부 미용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 팩은 감귤 껍질을 비닐 랩으로 여러 겹 말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데운 다음 파우치나 천에 감싸서 사용합니다.



- 입욕제는 깨끗이 씻은 감귤 10개분의 껍질을 그대로 자루에 담아 따뜻한 욕탕에 넣거나 그늘에서 껍질을 말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고운 색감으로 입맛을 돋우는 귤전과 새콤달콤한 귤소스

샐러드처럼 요리에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 감귤 요리법 등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 생활농업 - 전통음식 - 이달의 음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산 감초, 수입 감초보다 식품 안정성 높아

- 국산의 글리시리진 함량, 외국산보다 변이 폭 작아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국산과 외국산 감초의 지표 성분을 비교한 결과, 국산 감초가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감초는 약리적 효능과 감미가 탁월해 한약재와 건강 기능성 식품의 원재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약용식물입니다.
- 감초 뿌리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약효 성분 글리시리진(Glycyrrhizin, 지표 성분)은 항염증, 고지혈증 개선 등 약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섭취할 경우 고혈압, 부종, 심장 기능 이상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어 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지표 성분 함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불규칙한 것보다는 편차가 적어 식품으로서의 안정성이 높은 제품이 좋습니다.
- 이에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외국산 야생 감초와 국산 재배 감초의 글리시리진 함량을 조사했습니다.
- 500 ~ 600g 단위로 포장해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용 한약재에서 크기가 균일한 50개씩을 표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외국산 감초는 최소 0%에서 최대 12.4%까지 함량의 변이 폭이 커 약리성분의 균일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외국산 야생 감초는 영양 번식으로 균락을 이루고 있어 수십 년 된 감초와 수년 된 감초가 한꺼번에 수확돼 함량 차이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 정확히 2년생만 수확하는 국산 감초는 글리시리진 함량은 0.2% ~ 2.0%로 다소 떨어지지만 변이 폭이 작아 약리성분의 균일성은 더 높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번 연구 결과는 국산 감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올해 무더위와 가뭄으로 콩 수량 감소 예상

- 콩 꼬투리 맺히는 시기에 각별히 물 관리에 주의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올해 여름철 무더위와 가뭄 피해로 면적당 콩 수확량이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이번 여름은 평년에 비해 온도는 4℃ 가량 높았던 반면, 강수량은 평균 50mm 미만으로 극히 적어 콩 재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 7~8월은 콩의 꽃이 피고 꼬투리가 맺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올해와 같은 환경 조건에서는 낙화와 수정 장애가 일어납니다.
- 무더위와 가뭄에 의한 콩 시듦 현상이 때 무더위가 계속되면 콩 꼬투리와 알의 수가 적어지고 양분 이동이 고르지 못해 수량과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 농촌진흥청 자체 시험 결과, 꽃이 피는 시기에 물대기를 하지 않으면 꼬투리와 알 수가 평년 대비 최대 30%까지 줄어들 뿐 아니라 크기 또한 작아져 결과적으로 콩 무게와 수량이 감소했습니다.
- 또한 올해는 무더위와 가뭄에 의한 생육 정지로 꼬투리 달림과 콩알 성숙이 평년 대비 10일 이상 늦어져 건강한 종자 및 고품질 원료 콩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 여름철 무더위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절한 물대기가 중요합니다.
- 농촌진흥청의 현장 실증 조사 결과, 올해 적절한 물대기를 실시한 콩밭은 피해가 적었습니다. 꼬투리와 콩알 수가 약 30% 많았으며 콩 한 알의 무게는 5% 정도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콩의 꼬투리가 맺히는 시기에는 특히 지속적이고 세심하게 관찰하여 물대를 해야 하며, 오전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작물 피해를 줄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공적으로 극한 재배환경 조건을 만들어 다양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첨단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겨울철 농치기 쉬운 돼지우리 관리 요령

- 습도 50~60% 유지, 하루 한 번 소독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겨울철 알고도 농치기 쉬운 돼지우리 점검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 먼저, 우리 안의 습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균 확산이 억제되는 습도의 범위는 박테리아 30 ~ 60%, 바이러스 50 ~ 70%이므로, 공통 억제 범위인 50 ~ 60% 정도로 돼지우리를 관리합니다.
- 우리 안의 상대습도를 50 ~ 60%로 유지하면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균이 퍼지지 않고, 돼지 호흡기 건강에도 좋습니다.
- 충분한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지나친 습기와 해로운 냄새 성분을 제거합니다.
- 새끼돼지겨울철 환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사료 섭취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의 수치가 높아져 돼지는 호흡기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 또한, 낮과 밤 온도를 확인합니다. 겨울철 우리 안의 온도가 낮으면 돼지들이 서로 포개어 있거나 새끼 돼지는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돼지 방의 온도는 20도(℃)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항상 돼지의 행동과 건강 상태를 점검해 온도를 관리합니다.
- 돼지방 안의 단열이 부분적으로 안 되는지, 바닥으로 섯바람이 들어오는지, 환기율은 적당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 마지막으로 질병 관리에 신경씁니다.
- 소독약은 얼지 않도록 하고 하루 한 번 내부 소독을 하며, 출입도로는 석회석 등을 뿌립니다. 외부 출입 차량, 외부인에 대한 소독과 기록을 철저히 하고, 백신은 시기에 맞게 접종합니다.
- 차단 방역 중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각각의 돼지우리를 출입할 때 반드시 장화를 갈아 신는 것입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농수특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나서

- 250여 업체 대상 마케팅 강화 설명회... 오픈마켓 MD 컨설팅 등 실시 -

- 전라남도가 지역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판매업체 250여곳과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강화 설명회를 11월 16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급속히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전남지역 농수특산물 매출 확대와 남도장터 입점업체, 도지사품질인증 업체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 설명회에서는 함화연 카카오 차장이 마케팅 기법, 온라인 동향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어 이베이코리아를 비롯한 8개사 16명의 MD가 전남 70여 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제품 컨설팅을 해 업체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특히 이번 컨설팅은 대형 오픈마켓 MD와 온라인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 간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로서, 전남 업체들의 판로 개척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과 홍보 방안을 폭넓게 컨설팅함으로써 참여업체의 온라인 판매 능력을 높여주는 계기가 됐다.
- 최청산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남도장터도지사 품질인증 업체뿐만 아니라 농산물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의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새로운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마중물이 됐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올 논 타작물 재배 면적 전국 최다

- 계획면적 1만 698ha의 77%인 8천 266ha 재배이행 -

- 전라남도는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8천 266ha로 목표면적 1만 698ha의 77%를 달성해 전국 최다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올해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사업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료나 콩 등을 심은 면적을 필지별로 정밀 조사한 결과다.
- 작물별로는 총 8천 266ha 중 조사료가 4천 825ha(58%), 콩 등 두류가 1천 216ha(15%), 기타 일반작물이 2천 225ha(27%)로 조사됐다.
- 도내 시군별로는 해남군이 1천 260ha로 가장 많고, 고흥이 1천 90ha, 나주가 482ha, 무안이 464ha 등이다.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1ha(3천 평) 기준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논 타작물 재배로 올해 전남도의 벼 재배면적은 15만 4,970ha로 전년보다 4%가 줄었으나 쌀값 상승에 따라 쌀 총수입은 1조 8,48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천 927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 논에 타작물을 재배해 이행점검까지 끝낸 농가에 대해서는 ha(3천 평)당 조사료 400만 원, 두류 280만 원, 기타 일반작물 340만 원 등 품목별 지원 사업비를 12월 중 해당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다.
- 특히 전남도는 올해 논 타작물 확대 재배를 위해 도 자체 사업비로 도비 10억 원 등 총 36억 원을 확보해 8ha이상 논 콩 재배단지에 콩 전용 수확기 10대를 공급했다. 또 지난해 도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한 농가가 올해도 참여할 경우 국비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의 차액도 지방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곡성군, 토란 소비 진작을 위해 스피드 레시피 배포

- 더 간편히, 더 맛있게 토란 요리해 보세요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토란 소비 증대를 위해 『토란 스피드 레시피』 리플릿을 제작하여 읍면사무소와 토란재배농가 대상으로 5,000부 배부한다고 밝혔다.
- 리플릿은 토란 스프, 토란 피자, 토란밥 크로킷을 누구나 쉽게 10~15분 내에 만들 수 있게 사진과 함께 자세한 레시피를 싣고 있다. 또한 매시드 토란(요리를 위해 토란을 으깨어 손질해 놓은 것)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토란요리를 만들어 볼 수 있다.
- 연중 토란을 섭취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토란을 제철에 저렴한 가격으로 미리 구입하여 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토란 손질법 및 보관법도 안내하고 있다.
- 재배농가에서는 소비자들이 다양하게 토란을 즐길 수 있도록 토란 판매 시 리플릿을 동봉할 예정이다.

*출처 : 곡성군





고흥군, 유자 적기수확으로 수세안정 도모 나선다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유자 최대주산지로서 고품질 유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기수확 및 수확 후 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현장 지도에 나서고 있다.
- 현재 유자 과원에는 유자 향이 가득한 황금빛 유자들로 가득해 농가들 손길이 수확으로 바빠지고 있다.
- 유자 수확은 11월 상순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하순까지는 반드시 마무리를 해주어야 나무 수세가 정상적으로 안정되고 겨울철 한풍해 예방 등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다.
- 특히, 올해 착과된 유자는 지난 겨울 동해로 인해 수세가 많이 약해져 있기에 반드시 수확 시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확이 끝난 1주일 후에는 요소 0.2% 정도를 엽면살포 해주어 수세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이듬해 해거리가 예방되고 정상적인 착과를 맺을 수 있다.
- 그리고 월동 추위에 대비하여 과원 내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어린 묘목은 추위에 매우 약하므로 반드시 뿌리 근처 지제부 1m 정도에 짚·방한 매트 등을 감싸 보온관리를 해주고, 햇살이 잘 드는 오전에는 물주기를 자주 하여 동해 예방 및 죽은 가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군 관계자는 당부하였다.
- 한편, 비타민 C 등 각종 기능 성분이 풍부해, 혈당 개선 및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은 유자는 11월 8일 수매가 시작되었다.

*출처 : 고흥군





장흥군, 내년도 유기질비료 12월 4일까지 접수

- 장흥군은 오는 12월 4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재배예정 작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공급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산물 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다.
- 20kg 1포당 유기질비료는 2,200원, 부산물비료는 1등급 기준 2,000원을 지원한다.
- 장흥군은 2018년 국비 지원사업 외에도 3억 9천만 원의 군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가축분퇴비를 공급, 국비지원의 부족분을 해소했다.
- 토양개량제의 경우, 2019년 공급지역은 장동, 장평, 유치, 부산 4개면으로 2017 ~ 2019년 3년간 공급량을 일괄신청 받았으나 당초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2019년도에 경작지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추가 및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접수 전 조속히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농지정보를 현행화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기간 내 접수해야한다.

*출처 : 장흥군



완도군, 자연 그대로 키운 소안도 노지 감귤 본격 출하

- 완도군 소안도의 노지 감귤이 본격 출하되고 있다.
- 소안 노지 감귤은 45농가, 약 24ha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수확, 올해 생산량은 5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 완도자연그대로 소안도 감귤은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이며 해풍을 맞고 자라 당도가 높고 밤낮의 일교차가 커 껍질이 얇은 게 특징이다.
- 또한 다른 지역의 감귤에 비해 20일 정도 장기 보관이 가능해 한번 구입하면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어 해마다 소안도 감귤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한편 완도군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감귤 품질 고급화 시범을 통해 지역에 맞는 신품종 갱신 사업, 토양 비옥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토양 개량 사업, 감귤 전문가 초청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을 조성하였다.
- 완도 노지 감귤 연구회 백병두 회장은 “앞으로도 품질 좋은 감귤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이 애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준열)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감귤 생산 안정화 기술과 친환경 고품질의 감귤 생산 기술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감귤 구입 문의는 소량이 필요할 경우 완도 노지감귤 연구회 총무 (010-9885-9922), 대량의 감귤이 필요하신 분은 소안농협 경제사업부 (061-553-8189)로 전화하면 된다.

*출처 : 완도군





인도 FSSAI, 과일 및 야채 표면에 스티커 부착 자제 요청



인도 FSSAI, 과일 및 야채 표면에 스티커 부착 지양을 요청

- 인도 FSSAI(식품안전표준국)가 과일 및 야채류를 취급하는 수출입업체에 제품 표면에 스티커 부착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하고, 이는 제품 표면의 스티커가 제품의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FSSAI 관계자는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사용되는 접착제의 안전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스티커 사용을 지양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함.
- 더불어 FSSAI는 인도에서는 썩은 부분을 가리거나 브랜드명을 가리기 위해 스티커를 사용한다고 언급하며 선진국에서 제품의 정보, 이동, 등급, 가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스티커와는 반대되는 사례라고 지적함.



스티커에 사용되는 접착제가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 인도 내 업체들은 제품을 고급화하기 위해서, 혹은 제품의 부패상태, 손상들을 가리기 위해 스티커를 사용하며, 스티커 위에 기재된 브랜드명이나 최고 품질 등급, 시험 완료 등과 같은 문구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임.
- FSSAI는 스티커 접착제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보유할 수 있고 과일이나 야채의 경우 표면에 구멍이 많아 해로운 성분이 흡수되어 잔류할 수 있음을 지적함.

- 과일이나 야채를 껍질과 같이 섭취한다면 접착제 성분도 함께 섭취하여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과일 및 채소를 취급하는 수출입업체들에게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스티커를 바로 제품 표면에 붙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함.
- 만약 스티커를 제품 표면에 부착할 경우에는 스티커에 사용되는 접착제와 잉크의 안전성을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한편 인도 식품안전기준 2011에 의거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준사항이 없으며 포장된 신선과일에 사용되는 스티커나 접착제와 관련된 내용은 미비한 것이 한계임.

가급적 스티커 부착을 지양하고 부착 시 접착제 및 사용 성분에 대한 확신 있어야

- 인도 식품위생 당국이 과일이나 야채 표면에 스티커 부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관련 식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음. 아직까지 특정한 규정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 안전과 제품의 품질 보장을 위해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제품의 차별화나 제품의 상세정보 등을 스티커에 기재하여 부착할 경우에는 해당 스티커에 사용되는 접착제나 잉크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태국, 설탕·사탕수수 생산 및 소비량 감소

- 태국은 브라질과 인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설탕 생산국이다. 태국의 설탕과 사탕수수 생산량은 2018 - 19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2017년 태국 정부가 설탕세를 부과한 이후 소비자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무 - 알코올음료 제조사들도 설탕을 덜 소비하기 때문이다.
- 사탕수수의 주요 재배 지역에서 예상보다 적은 강우량으로 인해 평균 수확량이 감소하여 사탕수수 생산은 2018 - 19년 4% 감소한 1억 3천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기간 설탕 생산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1380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설탕 소비량은 2018년 상반기 동안 130만 톤으로 작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고 한다. 무 - 알코올음료 제조사들은 전 세계 산업의 설탕 소비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설탕세 때문에 음료 제조사들은 설탕 함량을 줄이기 위해 제품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 하지만 주스 제조사들은 설탕세는 과일주스에 첨가된 설탕에만 부과되어야 하며, 과일 속에 내재된 천연설탕까지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태국 정부는 건강 캠페인을 시작하여 태국인들이 설탕 소비를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는 데 주스 제조사들은 설탕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캠페인은 오히려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
- 설탕은 앞으로 더 느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식당과 제과점은 매월 태국 전역에서 새로이 개장하고 계속해서 설탕을 소비하기에 앞으로 설탕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어둡지만은 않다.
- 시사점으로 태국 정부의 설탕세 도입으로 일시적으로 설탕 소비가 감소되었지만 저렴한 가격과 설탕이 주는 달콤함은 소비자들이 쉽게 외면할 수는 없어 장기적으로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태국 소비 시장에도 건강한 단맛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코넛 슈가, 스테이바, 아가베 시럽, 유기농 꿀 등 설탕 대체 식품들이 틈새시장으로써 조금씩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11. 19. 시카고 선물거래소)

- 옥수수 선물가격, 기술적인 매도로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2%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혼조세 속 강세 스프레드 거래와 환매수로 소폭 상승했다. 미 농무부는 주간 밀 수출량을 기대치에 부합하는 43만 8,300톤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프랑스 밀 등급은 금년 가뭄으로 인해 6년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0.7%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기술적인 매도로 인해 하락했다. 미 농무부는 주간 옥수수 수출량이 89만 3,900톤(신곡과 구곡의 합)으로 기대치에 부합하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상인들은 미국의 수확량이 줄고 남미에서 재배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4%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 - 중 무역에 있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식으로 상승했다. 미국은 중국 수입품 250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머지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미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과 중국도 우리와 거래를 하고 싶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농무부는 주간 대두 수출량이 47만 900톤(신곡과 구곡의 합)으로 기대치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

- 전라남도농식품부-공공기관, 14일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 등 협약 -

-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빛가람 혁신도시 소재 14개 공공기관, 나주시와 함께 11월 14일 오후 3시 한전KDN(주) 본사에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구내식당 등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을 우선 소비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 중소농 소득 증대, 가공을 비롯한 지역 일자리 창출, 유통비용 및 푸드마일리지 감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선다.
- 그동안 전라남도과 농식품부, 나주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급식·유통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나주시역 중소농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했다.
- 중소농을 조직화해 로컬푸드를 공급할 경우 식재료 공급단가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나, 전라남도·나주시에서 유통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소화함에 따라 수요자의 추가 부담 없이 농가에 적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다.
- 나주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군대, 복지시설, 국공립병원 등 공공급식 전반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는 등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계획과를 지난 10월 신설했으며,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 공공기관은 구내식당 식재료뿐만 아니라 행사 기념품 및 부식 서비스, 명절 선물 등에 로컬푸드를 적극 활용한다.
- 또한 공공기관과 나주시는 로컬푸드 생산·가공 체험 등 상호 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한다.
- 농식품부는 빛가람 혁신도시 로컬푸드 활용 공공급식 선도모델을 다른 혁신도시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전라남도



청렴한세상 - 청백리 이주국 선생 일화



영조때 급제해 병마사를 거쳐 수군통제사를 지낸 이주국장군이



군사들을 훈련시킬 때, 늦은 자는 곤장 한대씩 때리는 벌칙으로



한 군인이 죽자, 이주국 장군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그의 식솔들을



장군의 집으로 데려가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아비의 원수를 갚으려던 아들이 살기의 마음을 접고 이주국장군에게 감사를 고하며 사라졌다고 하니, 공무를 행함에 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이주국장군의 행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VOL. 210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